

‘좀비딸’ 호평



‘전지적 독자 시점’ 악평



성패는 원작에 대한 이해

인기 웹툰·웹소설, 영화로 제작 상영…관객 평가 엇갈려

‘좀비딸’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캐스팅부터 스토리까지 탄탄

‘전지적 독자 시점’ 판타지 세계관 축소·캐릭터 붕괴…완성도 부족 평가

웹툰에서 웹소설로,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거쳐 영화와 드라마로 다시 태어나는 시대. 인기 IP(지식재산권)의 실사화는 이제 영화계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실패 확률을 줄이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이미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콘텐츠일수록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욱 가혹한 평가를 받게 된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좀비딸’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 개봉했다. 개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던 이 두 영화는 극명히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필감성 감독의 ‘좀비딸’은 좀비가 된 딸과 그런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고군분투를 그린 코믹 드라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좀비 바이러스에 딸 수아(최유리)가 감염되자, 아버지 정환(조정석)은 정부의 통제를 피해 고향 마을로 피신한다. 좀비가 된 딸을 포기할수 없었던 그는 호랑이 사육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좀비딸 사회화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좀비는 아포칼립스 영화의 단골 소재다. ‘부산행’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반면 ‘좀비딸’ 속 좀비는 치명적이면서도 묘하게 귀여운, 야생동물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부녀가 좀비 흉내로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나 좀비 수아가 할머니의 효자손에 맞고 주눅 드는 장면 등은 관객에게 웃음을 자아낸다.

‘좀비딸’은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5일 만에 관객 200만 명을 넘기며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여름방학 영화로 흥행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호평의 중심에는 캐스팅이 있다. 정환 역의 조정석은 영동하면서 따뜻한 부성애를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거침없는 입담의 할머니 박순은 이정은, ‘좀비 모범 신고자’ 영화는 조여정이 연기해 극의 재미를 더했다. 특히 좀비로 변한 딸 수아 역을 맡은 신예 최유리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점차 사회화되는 좀비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스코트인 고양이 ‘애옹’이 화제다. 원작에서 애옹은 두 발로 걷거나 말하고 좀비와 싸우기도 하는 설정이

지만, 영화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정해 CG 없이 실제 고양이 의 연기를 담았다. 애옹의 높은 싱크로율은 개봉 전부터 관심을 모으며 초반흥행을 견인했다.

‘좀비딸’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원작의 정서를 충실히 이해한 연출에 있다. ‘병맛’ 감성과 대표적인 개그 장면은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일부 설정을 현실적으로 다듬어 균형을 맞췄다. 일각에서는 신파로 흐른 점을 아쉽게 보기도 하지만, 덕분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로 완성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반면 김병우 감독의 ‘전지적 독자 시점’ (전독시)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전독시’는 상송 작가의 화제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누적 조회수 2억4000만 뷰를 넘긴 이 작품은 웹툰으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소식도 전해졌다. 때문에 실사와 소설이 알려졌을 때부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다.

영화는 10년 장기 연재된 소설이 완결되던 날, 그 세계가 현실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유일한 독자 김독자(안호섭)는 소설의 전개를 알고 있다는 점을 무기로, 도깨비와 같은 초월적 존재들과 맞서 싸운다.

‘전독시’는 최근 웹소설계의 트렌드인 ‘성좌물(星座物)’의 시초 격인 작품으로, 주인공이 판타지 세계에 진입해 게임 상태창 같은 시스템을 통해 성좌, 즉 초월적 존재와 소통하며 고난을 헤쳐나가는 스토리의 장르다. 따라서 영화는 일반 대중이 아닌 특정 마니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성공을 위해선 원작 이해와 시각적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세계관은 축소됐고, 캐릭터는 붕괴됐다. 남은 것은 선량한 청년이 영웅이 된다는 평면적 서사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0억 원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한 이유다.

‘좀비딸’과 ‘전독시’의 엇갈린 반응은 인기 IP 실사와 영화의 명암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체제된 영화계에서 인기 IP는 여전히 강력한 동력이지만,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스크린 언어로의 치밀한 재해석 없이는 그마저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문화가 일상이 되는 즐거움

문광부, 공연·전시 할인권 210만장 배포

정부가 공연·전시 할인권 210만장을 배포한다. 비수도권 추가 혜택도 마련된 만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 장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민생 회복을 위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이 투입된 문화 향유 확대 사업의 일환이다.

할인권은 공연 50만 장(1인당 1만 원 할인), 전시 160만 장(1인당 3천 원 할인) 규모다. 놀(NOL)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1인 2매씩 선착순 발급된다. 신청 기간은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발급된 할인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준비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종료될 수 있다.

할인권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뿐 아니라 미술관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대중가요 공연이나 산업 박람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민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예매처 타임티켓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에 한해,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2매를 더해 총 4매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같이 가치 나눔여행단, 미술로 나눔문화전



염동훈 작 '갈레의 고깃배'

7번째 개인전…10일까지 아크갤러리

매년 문화적으로 낙후된 아시아의 학교를 찾아 미술 매개로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펼치고 있는 '같이 가치 나눔여행단' (단장 김해성)이 7번째 전시를 진행 중이다.

동구 아크갤러리에서 지난 6일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지역 화가들과 여행지에서 스케치 및 미술 활동을 하고 돌아와 가치를 나누는 장이다.

특히 '나눔여행단 같이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트펀딩을 통해 마련된 타라 행사의 의미와 가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참여 작가는 김해성을 비롯해 곽철환, 임근재, 김동훈, 문희진, 김원중, 김선양, 김영태, 정기주, 문정호, 김민자, 송동욱, 강경숙, 정소영, 염동훈, 정혜숙, 전현숙, 박현만, 임현옥, 문정수 등이다.

모두 20여 명의 작가가 150여 점을 출품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아트펀딩 참여자는 70여명이며 펀딩 총액은 2200만 원에 달한다.

단원들은 아시아의 아이들에게 미술도 가르치고 벽화도 그리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토대로 한국



김영태 작 '아마아레이크'

인의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공유했던 것.

김해성의 '시그리야', 김영태의 '아마아레이크', 염동훈의 '갈레의 고깃배' 등은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국적이지만 한국적인, 어쩌면 남도의 정서가 깃들기도 한 듯한 작품들은 아시아의 공동체성을 환기한다.

한편 김해성 작가는 "이번 전시는 아시아의 숨겨진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펼쳤던 나눔의 활동을 펀딩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계기"라며 "무엇보다 프로와 아마추어 작가, 그리고 선후배 작가의 만남의 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